

과학적 탐구와 새로운 인간관

글 | 엄정식 _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jsumek@hanmail.net

국제 문제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최근호에서 현대의 대표적 사상가 8명에게 “오늘 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사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외교, 과학, 경제,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 이들 전문가는 5가지의 주제를 내놓았는데, 악과의 전쟁, 반미주의, 초인간주의, 자유의지의 부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론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과학적 인간관과 연관된 초인간주의 및 자유의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인간에 관한 과학적 탐구의 결과, 특히 생명 공학의 성과에 힘입어 인간을 진화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고, 도덕적 상황과 종교적 신앙의 전제로 요구되었던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의 본성을 ‘더 낫게’ 개조” 주장

이른바 ‘초인간주의’란 전통적으로 추구되어 온 인간주의의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나은 인간을 창조하지는 입장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류문화사에는 인간을 각종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의미의 본성을 되찾고 그것을 극대화하려는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어 왔었다.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정치 질서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아테네의 시민으로 돌아갈 것을 부르짖었고, 르네상스 때의 페트라르크나 에라스무스는 중세적 교회의 통제와 압박으로부터 헤어나 적나라한 인간의 본성을 되찾고자 하였다. 줄리앙, 헉슬리 이후의 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의 횡포와 거기서 파생된 갖가지 병폐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자는 성격을 띠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다양한 휴머니즘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위에 두자는 이념이다. 그러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은 이러한 과거의 휴머니즘과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한다.

초인간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최근에 눈부시게 발달한 생명공학의 성과에 열광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간을 진화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다른 차원의 종으로 도약시키려 한다. 이것은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의 유기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로 하며 동시에 모든 인간은 개체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이 인간이라고 불리기 이전인 원시의 단백질 고리로서 존재했을 때부터 제한된 자원과 환경 안에서 자기 복제와 우성 인자의 생존 및 열성 인자의 사멸을 거듭하면서 각 개체 간의 경쟁 체제를 구축해 왔다. 따라서 그 치열한 생존의 결과물이 바로 인간이며 근본적으로 동물의 존속과 그것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러한 진화의 연쇄에 수동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낫게’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전 공학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생명체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우리가 필요한 생산물을 얻어내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우리는 세균을 만들어 내어 키를 크게도 하고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으며, 동물을 이용해서 빈혈을 치료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장기를 만들 수 있고, 마침내 인간을 좀 더 ‘낫게’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것이 선이든 혹은 악이든 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전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휴머니즘’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되찾는 운동이라면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의 본성을 바람직한 형태로 개조하자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 동안 인간에 관한 과학적 탐구는 인간에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점이 많이 있지만 역시 동물의 일종일 뿐이고, 따라서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 왔다. 토머스 하비

는 피의 순환을 규명하여 그것을 밝혔고 파블로프는 조건반사 실험을 통하여 개도 인간처럼 신경질환의 증세를 보일 수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프로이트는 인간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잠재적인 의지력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행태주의의 기초자인 왓슨은 이렇게까지 주장한다.

“나에게 정상적인 아이 12명과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나 자신의 특수한 세계를 준다면, 나는 누구든 무작위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전문가로도 훈련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재능이나 기호, 성향, 능력, 적성, 그 조상의 인종 따위와 관계없이 의사, 변호사, 예술가, 경영주 등 심지어 거지나 도둑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어느 정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개나 말을 조련하듯 작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유형의 모습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더구나 오늘날에는 유전자 조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복제 인간도 언제든 등장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감정을 지닌 인공물까지 원칙적으로 제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과 자연의 다른 존재, 특히 영리한 동물이나 세련된 로봇과의 차이는 이성과 사유 기능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정도의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과학적 인간관의 한계

한편 과학적 인간관은 인간에게 과연 '자유지' 라는 것이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만약 자연에는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면 인간의 행동은 어떤 원인의 결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위의 주체인 자아의 존재를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 주체가 유전인자와 환경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인과의 과정에 불과하다면 결국 행위자 자신도 존재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동의 주체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철학적으로는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선 행위의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도덕적 및 종교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만 가지고 자연과 인간의 본질에 관해 속단을 내리고 과학적 인간관을 옹호하는 것은 경솔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는 인간에게서 동물적 요소를 더욱 많이 추적해 낼 뿐 아니라 다른 동물로부터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고 간주되었던 형상을 점점 더 많이 추적해 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



복제양 돌리

한 추세로 나간다면 인간과 동물의 구분, 혹은 자연과 인공의 이분법은 약화되고 자연에 대한 대결 의식은 근거가 없어지며, 마치 손가락이 손의 일부이며 온 몸의 한 부분인듯이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의 결과로 나타난 자연관이나 인간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과학적 탐구가 방법론상 자연을 전체로서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과 실험과 관찰 및 추론의 제한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과학적 관점에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삶에 관한 이해를 작위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트랭은 그의 '종교적 인간의 이해' 에서 이 점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적 방법에서 중요한 특성은 세계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힘과 주어진 결과를 산출하는 조건들을 근거로 해서 규정하려는, 그리고 이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과 과정들에 대해서 삶에 관한 인간의 이해를 자의적으로 한정지으려는 의도에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그의 '논리철학 논고' 에서 “있을 수 있는 과학적 질문이 모두 해답을 얻었다고 해도 삶에 관한 문제는 손도 못 대본 채로 남아 있을 것”이며, 과학은 기껏해야 “세계가 실제로 기술하고 있는 바로 그 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㉔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